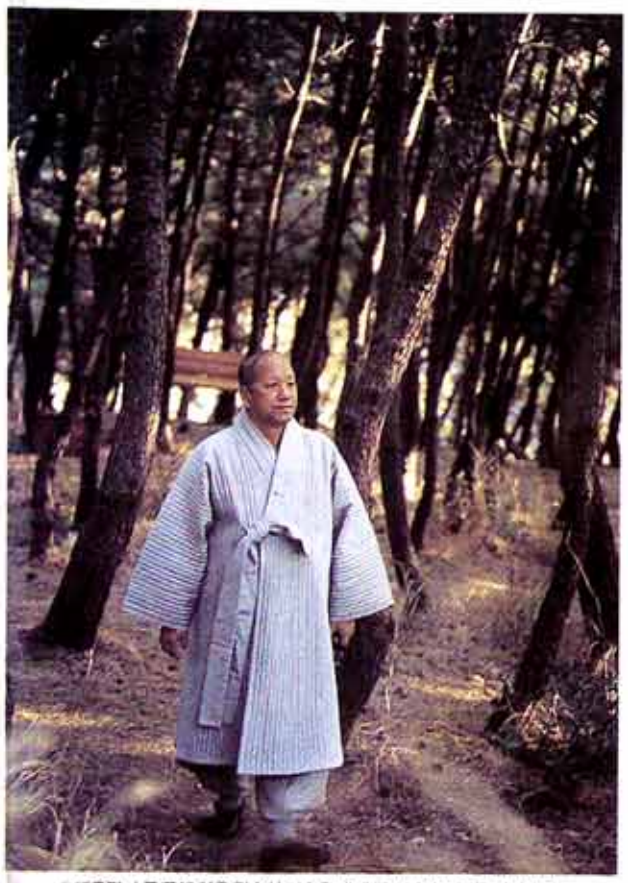


◇해운정사 를 품에 안은 장수산 기슭은 진제 큰스님의 또다른 선방이다.



#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효명스님

해맑은 미소를 오래 간직하기란 쉽지 않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수덕사 견성암에서 오랫동안 입승을 지낸 효명(曉明) 스님은 아주 밝고 부드러운 미소를 늘 간직하고 계신 분이다. 이십년전에 봤던 그분의 따사로운 미소는 아직도 변함없다. 늘 끊임없이 정진하시며 일생을 납자로 살아가시는 그분의 삶이 그 미소속에 다 녹아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타는 듯한 분노와 고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스님 앞에서는 봄날의 눈처럼 녹지 않을 수 없다.

효명 스님은 아마 환갑을 훌쩍 넘기셨을 텐데도 그 고요함과 맑은 미소 탓인지 아주 활기차 보이시고 모든 이들을 따사로운 마음으로 감싸고 고요히 참선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

견성암 행자시절에 난 유독히 잠이 많았다. 새벽에 도량석하러 나가서는 큰 절 범종소리가 잦아들면 시작해야 하는데 그만 계단에 쭈그리고 잠이 들기도 하고, 예불시간에 절하다가 잠이 들어 못 일어나고, 천수 목탁 치다가 목탁채를 놓치고 잠 잘 정도였으니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웃음이 난다. 그것도 모자라 병든 닭처럼 틈만 보이

## 부드러운 미소의 평생납자

## 후학들에 자상한 경책

면 주저앉아 끄먹거리며 졸기 일쑤였다. 그 때 우리 은사스님과 효명스님은 당시 수덕사 조실이셨던 혜암 큰스님을 시봉하시느라 수덕사에 계셨는데 시간만 나면 큰스님 가르침도 듣고 쏟아지는 잠도 물리치느라 큰 절 발걸음을 자주 했다.

아마 그 날도 큰스님께 인사 올리고 뒷방으로 가자마자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눕히고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얼마쯤 잤을까 내 허리와 배 쪽으로 아주 따뜻한 것이 쓰윽 들어오고 있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효명스님이 웃으시며 차가운 방에서 누워 자면 감기 걸리니 따뜻한 찜질팩을 안고 조금 더 누었다가 견성암으로 가라고 하셨다. 다른 사람 같으면 후다닥 놀라서 갔으련만 나는 배짱 좋게 정말 저녁 공양 준비할 때가 되어서야 부시시 일어나서 왔다.

다음 날, 큰절에 내려갔더니 우리 스님은 안 계시고 효명스님만 큰스님 곁에 계셨다. 스님은 그 날 내게 차담을 주시며 앉아보라고 하셨다.

"원욱이, 견성암에서 채공 사는 거 많이 고단하지? 일도 안해 봤을텐데 열심히 잘 하려고 애쓰는 것 보면 참 대견하구나. 그런데 말이다. 도닦는 이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수마(睡魔)란다. 수마는 마치 밤벌레가 밤을 갉아먹는 것처럼 수행자의 몸을 갉아먹는단다. 수마를 견디어 내지 못하면 아주 게으른 사람이 돼요. 게으름은 마치 독이 든 음식과 같아 처음에는 향기로운 맛이 나더라도 마침내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해태(懈怠)의 검은 구름이 온갖 환한 지혜를 덮어 공덕을 없애지. 피곤함과 나른함을 핑계로 결국엔 잠에 질질 끌려 다니게 되니 일대사 인연을 끊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온 네가 기껏해서 잠에게 목덜미를 잡혀서야 되겠니? 똑똑해서 부처님 경전을 가로 세로로 다 읽어도 수마를 조복받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이야. 우리 원욱이, 다 잘하는데 그 잠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잠은 아주 게으름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것이니 삼가 경계하려무나. 본래 절에 처음 오면 이것저것 낯선 것들과 조화를 이루느라 긴장하느라 잠이 많이 오기도 하지. 느그 스님이 네가 몸이 약해서 그런다고 걱정하시더라. 그러나 다 마음먹기 나름이야."

듬만 나면 졸고 또 졸면 나는 생각할수록 부끄러웠다. 다음날부터 효명스님 말씀처럼 잠이 오면 밤벌레를 생각했다. 내 몸을 갉아먹고 있을 밤벌레를 생각하며 졸음과 싸우며 큰절에 내려가



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 무진 애를 썼다.

해태라는 놈은 원래 무지라는 근본 번뇌에 속해서 바른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에서 생기며 적극적이거나 과감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악을 끊고 선을 닦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니 시도 때도 없이 잠들고 기대며 길게 드러눕는 안락함에 습을 빠져드는 것이다. 그럴수록 나태해져서 점점 수행에 힘쓰지 않게 되니 이것은 바로 더러움에 이르는 문이며, 죽음에 이르는 문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다.

얼마 후에 효명스님을 뵈러가니 내게 〈열반경〉을 주시면서 밑줄친 곳을 읽으라고 하셨다. 지금도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늘 게으르지 않으려 애쓰는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세상의 악한 행위를 즐겨하고 무익한 말을 즐기며 잠을 즐기고 세속 이익을 즐겨함이라, 또한 나쁜 벗을 가까이 하고 항상 게으르고 태만하며 늘 남을 경멸하고 무엇을 들으면 이내 잊어버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살길 즐기며 감관들을 제어하지 못함이요 또 살아가는데 만족할 줄을 모르며 완전한 고립을 즐기고 소견이 바르지 못함이니 삼가 경계해야 한다." 書서울 반야사 주지



"공부인은 본시 모든 반연(攀緣)을 다 끊어야 합니다. 방선(放禪)을 했다고 해서 한화잡담(閑話雜談)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야만 화두가 흐르는 물과 같이 끊이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일념삼매(一念三昧)에 푹 빠져서 모든 분별을 다 잊어버린 가운데 흡사 돌사람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몸뚱이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온 천지가 화두**가 되어 오로지 화두 한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일념이 간단없이 지속되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또 커다란 의문 하나 머리를 든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한 언어 표현은 정말 불가능한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자비'라는 '말'에 자비가 있는 게 아니듯이. 그렇다면, 깨달은 이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의 구체성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어떤 것이 깨달은 이의 삶인가?

> "한걸음 물러나 자신 낮추고
> 만사람 우러러 보세요
> 언제나 평화로울 것입니다"

"견성(見性) 즉 공부를 마쳤다고 하여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은 경계를 일상 생활에 항시 수용하는 것이지요. 깨달은 경계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살림살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온 중생과 한몸이 되는 **절대 평등의 경지**이지요. 어떤 경우든 아귀 다툼이 없고 항상 평온하고 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평등의 경지, 조금 알 것도 같다. 하지만 그러한 세계는 철저한 자각(自覺)과 체험 없이는 '남의 살림'에 불과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사족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는 문제가 된다. '문자에 끄달리지 말라'는 말도 '문자'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법거량도 말로 이루어지지 않던가. 그런데 왜 선사들은 한결같이 '언어'를 경계하는가.

"깨달음은 모든 부처와 조사의 가르침을 꿰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찌 말로 이룰 일입니까. 그런데도 머리로 헤아려 조금 안 것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바늘구멍만한 소견으로 이해하면 고인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은 연후에는 모든 것을 내 살림으로 굴릴 수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지요."

불립문자(不立文字), 선가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무언무설(無言無說), 부처나 깨달음의 세계는 오직 체험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는 태도는 불가의 오랜 전통이다.

선리(禪理)를 정교한 언어로 표현해 낸 것으로 유명한 조주 선사도 어떤 스님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祖師西來意)'을 묻자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라고 답한다. 가히 '시치미 떼기'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엉뚱한 대답으로 사량 분별 혹은 길들여진 사고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다. 오늘날 화두로 불리는 공안(公案)도 중국 당·송대에 성행한 선문답(禪門答)에서 비롯되었다.

선문답. 스승과 제자의 봄꽃 튀는 접전. 선의 진경이다. 이러한 선종의 가풍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진제 큰스님 또한 선문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당기일구(當機一句)**에 진짜 살림살이가 있습니다. 전광석화처럼 터져나오는 한 마디에 선객의 살림살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면 만리 밖이예요. 정안(正眼)을 얻으면 전광석화처럼 씁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법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돌사람도 땀을 흘린다'고 했어요."

당기일구(當機一句), 법거량을 할 때, 능히 감당할 기틀을 갖춘 사람이 터트리는 한 마디라는 말인데, 그 가운데 공부인의 진면모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즘은 법거량을 청하는 납자들이 드물다고 한다. 그렇지만 큰스님께서는 크게 낙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반대다. 한국 불교만이 간화선의 전통 즉 임제 가풍을 여법하게 이어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의 선양을 위해 10월에 해운정사에서는 국제무차선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중국·일본의 선사들이 모여 그야말로 차별없는 선의 세계를 펼쳐보일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주고받는 문답은 사량이나 조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스승없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천마(天魔)이고 외도라고 하셨어요.** 하찮은 경계에 속아 중도에 머무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철저히 참구해야 합니다.

혹자는 간화선에 대해 회의적인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견성법은 동일합니다. 만약 다름이 있다면 어느 한쪽에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고인들의 살림살이가 따로 있고 현재 우리가 공부한 살림살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큰스님의 수행관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 고준한 그 뜻을 온전히 내것으로 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깨달음이란 것이 남의 일일 수만은 없다는 생각 한 자락 챙겨본다.

푸릇푸릇 돋아나는 인사를 올리려 하니 빙그레 웃으시며 새해를 맞은 불자들이 올 한해를 살아갈 마음 길을 밝혀 주신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낮추고, 만사람을 우러러 보세요.** 그러면 언제나 평화로울 것입니다."

글=윤제학 기자 yunh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속리산 법주사 청동대불 개금불사

○청동 정밀 주조
○청동 대불 도금 불사

匠人의 魂

장인미술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307번지 TEL : 031-332-2680
금 불 원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534-1 TEL : 031-542-0110
불사문의 011-215-4491




※ 한국 최초 "육성 도금" 기법